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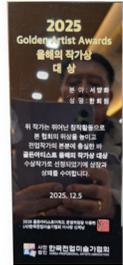
한희원 작가, '골든아티스트 올해의 작가상 대상'

전업 30년째... 동료 작가가 주는 '최고의 상' 수상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수여... "열심히 하라는 격려"



삶과 예술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천착 해온 광주 출생 한희원 화가가 동료 작가들이 주는 최고의 상을 수상했다. 한희원 작가는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이사장 신재남)와 2025 골든아티스트 어워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현)가 수여하는 '골든아티스트 올해의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선정은 지난해 이뤄졌고, 상패 또한 2025년 12월 5일자로 제작됐지만 시상식은

지난 3일 서울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사무실에서 뒤늦게 거행됐다. '골든아티스트 올해의 작가상 대상'은 뛰어난 창작활동으로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업작가의 본분에 충실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특히 한 작가에게는 올해 전업 햇수로 30년째에 접어든 해에 수상 작가로 이름을 올리게 돼 남다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매일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을 해 온 결과 같다"면서 "작가들이 주는 상이어서 가장 소중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작업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소감을 통해 "한 가지 일에 인생을 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았다. 저는 '목욕하'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작품도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한다.

작가는 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본격적인 화가로의 작업을 펼치기 위해 사표를 쓰고 나온 1997년부터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초기 작품에서는 냉혹한 사회적 현실과 소외된 이들의 삶을 묘사하며 인간의 고통과 현실을 담아냈으며, 이후 도시와 농촌의 풍경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갔다. 2020년 이후 작가의 대표작품으로 평가받는 '생의 연작'에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며 깊은 울림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일봉은 노후화된 선수단 버스 교체와 유소년 라켓볼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화폭에서 그리움이나 외로움, 고독 같은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차분한 색감을 세밀하게 구사해 안식을 부여해준데 최적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희원 작가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시작으로 죽음·삶·시간 등의 화두에 천착해 서정성과 시적 감수성을 담은 회화 작업을 전개해왔으며, '양림골목비엔날레' 추진 등 지역의 역사성과 인문학적 가치 보존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2025 오지호미술상'을 수상했던 만큼 수상작가전이 지난 1월 30일 개막, 오는 4월 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6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신임 화순전남대병원장에 이완식 소화기내과 교수

치과병원장 임현필·화순군립요양병원장 김형록 교수 선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2대 병원장에 이완식 소화기내과 교수,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제9대 병원장에 임현필 치과보철과 교수, 화순군립요양병원 제8대 병원장에 김형록 대장항문외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제67차 정기이사회와 97차 서면이사회를 열어 전임 보직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인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완식 신임 화순전남대병원장은 1994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소화기내과 및 내시경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2020~2025년 까지 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대한상부위장관학회 이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현필 신임 전남대치과병원장은 2000년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동 대학원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



이완식 교수, 임현필 교수, 김형록 교수. 학원 교수로 부임한 후 전남대치과병원 교육연구부장·기획부장·진료부장을 역임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턱관절학회,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등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형록 신임 화순군립요양병원장은 지난 1987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광양기업, 전남드래곤즈에 '선전기원' 금일봉 전달 황재우 대표 "리그 승격...지역사회 밝은 희망을"

포스코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광양기업은 프로축구 선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최근 전남드래곤즈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선수단의 원정 이동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자산인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일봉은 노후화된 선수단 버스 교체와 유소년 라켓볼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황재우 ㈜광양기업 대표는 "과거 우리나라는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국가적 도약의 전환점을 맞았다"며 "스포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드래곤즈가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 1부 리그로 승격하고 지역사회에 밝은 희망의 빛

을 비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중찬 전남드래곤즈 대표는 "경기장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구단과 선수단을 위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하다"며 "선수단과 프런트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후원의사와 팬들의 성원에 반드시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전남여성대회 목포서 성료...성평등 가치 확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평화광장서 개최 여성단체 등 참여...여성 권익 연대 다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 여성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연대를 다짐했다. 전남도는 최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7회 전남여성대회가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7회 전남여성대회가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지역 9개 민간단체 대표와 여성인권단체연합 회원 등이 참석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전남여성인권단체 활동 영상 상영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이충각 대표와 음악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 마지막에는 내빈들이 참여한 퍼포먼스를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메

시지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부스도 마련돼 여성 인권과 상담·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하 영상을 통해 "여성의 도전이 응원받고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여성이 당당히 리더로 성

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의 가능성과 역할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섬유 여성노동자 1만5천여 명이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1977년 유엔이 이를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관련 기념행사가 이어져 왔으며, 201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주관으로 2010년부터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빛고을청춘대학이 최근 광주문화체육센터 빛고을청춘대학 제9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활기찬 노년 '빛고을청춘대학' 9기 수료식 성황 수료생 170명 배출...국회의원상·공로패 등 수여

빛고을청춘대학은 최근 광주문화체육센터 빛고을청춘대학 제9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료생과 관계자, 지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숙한 청춘의 열정을 기렸다. 빛고을청춘대학 홍보영상 상영으로 포문을 연 이날 행사는 김수영 강사의 'I sold my soul', '사랑의 맘보' 라인댄스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김상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함께 단체촬영을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건강체조에서는 장효순 강사의 지도로 '나나나'와 '햇놀이' 노래를 통해 참가자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참석했다. 퍼포먼스 공연에서는 박덕귀 명창이 춘향가 중 '어사상봉', '동헌 경사' 소금의 울고 넘는 박달재, '전주 비빔밥' 등을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마인드강연에서 김진성 빛고을청춘대학 대표 고문은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들이는 힘'을 주제로 '뚝방의 관심과 도움에 큰 희망을 느낀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성 대표 고문은 "마음의 세계도 내

마음에 슬픔과 절망만 있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돼 있다"며 "이러한 기쁨과 사랑이 마음에 흐르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 청춘대학 학생들이 올 한 해 이 마음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료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나타낸 수강생들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자치대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료생에 대한 상장 수여가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송원대 총학생회는 매년 빛고을 청춘대학 아르선들을 위해 학사복 200벌을 후원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따뜻한 나눔은 어르신들의 졸업과 성취의 기쁨을 더욱 뜻깊게 해 공동체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상자 중 '어사상봉', '동헌 경사' 소금의 울고 넘는 박달재, '전주 비빔밥' 등을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한편, 입학식은 오는 12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빛고을청춘대학은 3월부터 수시 모집을 진행하며, 관심 있는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폐지 수집하며 생계 잇는 노부부 돕기 나서

보문복지재단, 월산4동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재)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경태)은 지난 6일 광주 남구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 노부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부의 사연은 2018년 MBN 프로그램 '소나무'를 통해 소개된 바 있으며, 당시 한 해 사이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뒤 폐지를 수집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활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부인이 대장암 투병을 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단의 지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정경태 이사장은 "보문복지재단은 설립자 동국 정형대 선생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집보다 쓰임이 중요하고 더함보다 나눔이 중요하다는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보문복지재단이 월산4동에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했다.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성금을 전달받은 노부부는 "한 해 사이

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뒤 부부 둘만 남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큰 힘이 된다"며 "뚝방의 관심과 도움에 큰 희망을 느낀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